

KCCI 브리프_ESG_제34호

KCCI ESG NEWSLETTER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FEB. 2024

전문가 기고

ESG란 이름보다 중요한 것

ESG 주요 현안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과 활동

국내외 주요 ESG 뉴스

ESG 주요 통계

ESG 금융
ESG 평가
기타 통계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대한상공회의소

전문가 기고

ESG란 이름보다 중요한 것

권다희

머니투데이 기자

“ ESG는
(환경 · 사회적책임 · 지배구조)
미국에서 정치적
샌드백이 됐다...
공화당의 반발로
금융업계는 기후변화나
ESG 관련 이슈를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는다. ”

지난 15일 미국의 대형 자산운용사 JP모간자산운용과 스테이트스트리트가 클라이밋 액션 100+(CA100+)를 탈퇴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블룸버그통신이 내놓은 분석의 일부다. CA100+는 석유 기업, 항공사 등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요구하기 위해 2017년 말 결성된 투자자 그룹이다. 약 68조달러를 운용하는 700여 투자자들이 소속됐다. JP모간자산운용, 스테이트스트리트는 2020년에 합류했다.

ESG 회의론에 다시금 기름을 부은 대형 투자사들의 CA100+ 이탈은 ESG에 대한 미국 내 정치적 압력이 고조되며 발생했다. 최근 몇 년간 공화당 정치인들은 금융사들이 CA100+ 같은 행동 그룹에 속한 게 독점금지법이나 수탁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압력을 가해 왔다. 공화당의 짐 조던 미 하원 법사위원장은 지난해 'ESG 카르텔'이란 표현을 쓰며 '반(反) ESG' 정치 수사화에 앞장섰다. 공화당 우세주들은 ESG 방지법 도입을 추진하고 금융사들을 조사했다. 미국 오일메이저들의 고향 텍사스주는 석유 반대 기조에 반발해 블랙록과 거래를 끊었고, 또 다른 석유 생산주 오클라호마도 JP모건, 블랙록 등이 주정부와 사업을 하는 걸 차단하려 시도했다. 미 금융계에서 기후변화나 ESG 관련 노력을 오히려 숨기는 '그린허싱(green hushing)'이 확대되는 배경이다.

그러나 ESG라는 명칭 사용 자제나 이니셔티브 약화가 시장에 실재하는 움직임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 현상인지는 따져 봐야 할 문제다. 막대한 자금이 여전히 에너지 전환과 기후테크 분야로 몰리고 있어서다.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저탄소 에너지전환 투자액은 전년대비 17% 늘어난 1조7700억 달러(약 2364조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기차 등 운송 부문에 36% 늘어난 6340억달러의 돈이 몰렸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한해 전보다 8% 증가한 6230억달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국가 주도로 에너지전환과 미래 산업에 자금을 쏟아붓는 중국(6760억달러), 이 분야에서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EU(3410억달러)에서의 투자가 컸다. 미국도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영향으로 22% 늘어난 3030억달러의 자금을 끌어들었다.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수천조원의 돈이 녹색 전환 관련 투자로 흘러갔다.

이런 시장을 만든 단기적 동력에는 IRA라는 강력한 유인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후 유럽에서 커진 에너지안보에 대한 정치적 필요 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각국의 여론과 정책이 있다. 탄소 배출을 비싸게 하는 제도들은 유럽을 시작으로 확산·정착돼 왔다. 배출권거래제(ETS)는 도입 전 유럽 내에서도 회의론과 저항이 팽배했지만, EU 도입 약 20년 후인 현재는 전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탄소배출 억제 시스템이 됐다. 최근 시작된 탄소국경조정제도 역시 유럽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 기업들에게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역시 유럽에서 시작해 수년 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의무화될 예정이다.

시장의 변화를 만드는 변수는 이렇듯 복합적이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정치적 압력 역시 시장의 동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정치적 수사와 실제 일어나는 상황을 분간해야 한다. 힘을 잃고 있는 게 ESG라는 말인지, ESG라는 용어가 지칭해 왔던 대상인지를 구분해 봐야 하는 이유다.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과 활동

지속가능경영원

“그린워싱이란 과장 또는 허위 내용으로 긍정적인 환경적 이미지를 획득하여 이득을 보는 부정행위를 의미한다.”



1-1. 그린워싱(Green Washing)이란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이란 기업,공기업,공공기관,정부가 재화나 서비스의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효과에 대한 과장 또는 허위 내용으로 긍정적인 환경적 이미지를 획득하여 이득을 보는 부정행위를 의미한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트렌드가 CSR을 지나 ESG의 단계에 들어온 이 시점에 ESG경영의 최대 장애물인 그린워싱을 둘러싼 논의 및 제도적 준비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 그린워싱 외에도 ESG워싱에는 블루워싱(인권 리더십 이미지 활용), 브라운워싱(부정적인 환경적 성과를 고의로 누락), 임팩트워싱(근거가 빈약한 시장 선도적 입지 과시)이 있다.

1-2. ESG투자과 그린워싱의 문제

해외 언론사인 ESGtoday의 보도에 따르면, PwC가 345명의 금융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94%의 응답자들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입증되지 않은 성과 보고가 들어있다고' 답했으며, "투자자들은 여전히 재무제표 공시를 가장 신뢰하며,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공개하는 정보 중 신뢰도가 떨어지는 자료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응답자들은 유럽의 ESRS(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 미국의 SEC(증권거래위원회), ISSB(국제지속가능성위원회) 같은 글로벌 공시 기준에 따른 ESG 정보 공시 및 제3자 인증에 의한 신뢰성 제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ESG공시가 기업의 홍보수단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IR(정보 제공)의 단계로 도약해야 하며,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ESG투자 활성화와 투명한 ESG 정보 공시를 위한 그린워싱 방지 정책이나 규제가 EU와 미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있다.

1-3.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정책 및 규제



출처: 제17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발표자료 '그린워싱 리스크와 대응방안' (24.2.5)

ESG 주요 현안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과 활동



1-4. EU와 미국의 그린워싱 규제 동향

(단위: 위반제품 기준 건수)

국가	지침	
EU	Green Clai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서비스 친환경성을 주장하는 활동시 근거 제시 필요성과 금지 행위 규정 - 탄소 중립 주장에는 '내부 감축', '탄소 상쇄(carbon offset)'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 LCA 관점에서 환경영향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 연간 매출의 최대 4%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및 공공지원 배제 조치 가능
	Funds' nam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펀드명에 ESG/지속가능성/전환 용어 사용시, 투자의 일정 비율을 E, S에 투자 요구
	ECGT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Direc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린워싱 제품 규제 관련
미국	US FTC (연방거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마케팅 주장에 대한 사용지침' 개정으로 그린워싱 조사와 규제강화 예정 원료 공급부터 공급망 전체의 기업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 (기후변화, 재활용, 지속가능성, 유해물질Free 마케팅 중점 조사)
	US SEC (증권거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펀드 상품명과 실제 투자 포트폴리오가 일치하도록 하는 규칙 의결(기재된 투자항목에 펀드 자산의 최소 80%가 일치해야) 투자 설계시 ESG요소 적용된 펀드포함, 그린워싱 리스크 보완

1-5 한국의 그린워싱 규제 동향

국내에서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과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그린워싱) 예방을 위한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이 운영되고 있다.

2023년 6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상 환경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인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행정예고하였고, 동 심사지침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2023년 10월 3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제작한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그린워싱) 예방을 위한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조사 현황

(단위: 위반제품 기준 건수)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조사실적	800	2,324	27,670*	12,187	14,166	57,147	
조치	계	257	57	110	272	4,558	5,254
	고발	-	-	-	-	-	-
	행정처분(시정명령)	2	-	-	5	4	11
	행정지도	255	57	110	267	4,554	5,243
자율시정	-	2,200	27,377	2,900	6,200	38,677	

* 출처: 환경부

ESG 주요 현안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과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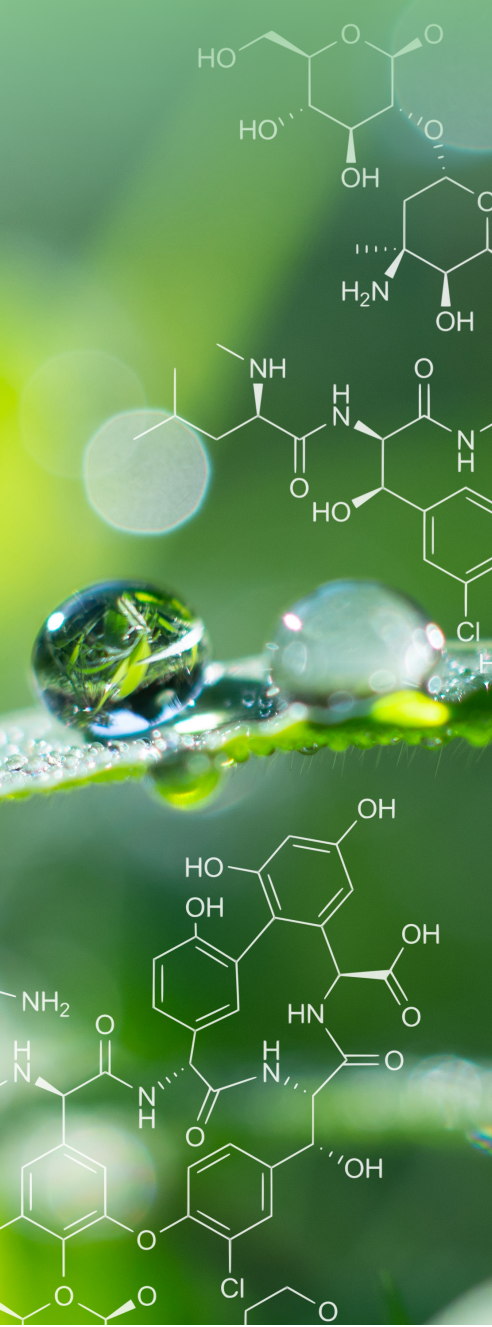
2-1. 환경부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환경부는 표시·광고의 목적, 대상, 용어 정의와 더불어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예시를 통하여 기본원칙의 어떤 항목에 위배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진실성	환경성 표시·광고의 내용과 표현 및 방법은 사실에 근거하고 명료·정확하여 직·간접적으로 국민을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함
표현의 명확성	광고 문구(슬로건)·도안·색상의 위치와 크기 등 내용과 표현 및 방법이 정확하고 명료하여야 하며, 그러한 내용 등이 직·간접적으로 국민을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함
대상의 구체성	표시·광고의 대상이 기업의 전체 또는 일부, 혹은 제품 전체 또는 일부 중 어떠한 부분에 관한 것인지 명확하게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함
상당성	기업 이미지광고에 사용된 환경성 주장을 실제로 개선된 정도보다 과장하지 않아야 하며, 국민에게 환경성 개선의 정도에 대하여 수치적으로 유의미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자발성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마치 자발적으로 환경성을 개선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아야 함
정보의 완전성	국민의 판단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누락·은폐 또는 축소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국민을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함
관련성	경영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아 환경부하가 미미한 사안에 관하여 국민의 오인성 없이 표시·광고하여야 함
실증 가능성	표시·광고를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최신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함

ESG 주요 현안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과 활동



2-2. 친환경 표시·광고 유형별 가이드라인

환경부는 친환경 표시·광고를 8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표시·광고 방법 및 실증 세부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유형별 '잘못된 예시' 또는 '좋은 예시'를 수록하여 기업의 이해를 돕고 있다.

구분	준수사항	'좋은 예시' 주요 사례
환경방침 및 환경경영의 목표 등 환경경영 의지 표명에 대한 표시·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환경경영 방침 및 목표 등 환경경영 의지 표명에 대한 표시·광고 시, 달성될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간별/단계별 구체적인 목표계획을 함께 제시 기업의 미래 목표 및 의지는 기업의 실질적인 노력과 비례해야 하며, 세부 이행 추진계획 등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자료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대비 50% 감축: (2024) 20% → (2026) 30% → (2030) 50%
환경 관련 인증 등의 획득에 관한 표시·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과 관련된 인증·선정·특허·수상 등은 획득 사실(내용) 또는 인정 범위(가치) 등을 사실 그대로 표시·광고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인정하는 주체기관을 함께 기재 기간이 제한된 인증·특허 등의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유효 기간 내에서만 해당 내용을 표시·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OO리조트는 사업장 재활용률 95% 달성을 통해 폐기물 매립제로(ZWTL) 인증(골드등급)을 2022년에 취득하였습니다. * ZWTL 인증 등급: 실버(재활용률 90~94%), 골드(95~99%), 플래티넘(100%)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표시·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미래 계획을 표시·광고할 때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량, 목표연도(단기, 중기 및 장기) 등을 설정하여 제시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 할당 대상인 기업은 법적 의무사항 준수에 관한 사항과 자발적 환경성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표시·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감축 목표연도 기준연도 2018년, 중기목표 2030년, 최종(장기)목표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2050년까지 75% 감축
탄소중립 주장에 대한 표시·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 주장에 대해 탄소배출 감축(직접 및 간접)인지, 또는 상쇄를 기반으로 주장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상쇄를 기반으로 하는 주장인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상쇄 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 <p>* 표시·광고 내 구체적인 세부내용 기재가 어려운 경우, 일반 국민이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출처(홈페이지, QR 코드 등)로 대체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₂ 배출량 보상 비행 시(김포-제주, 2023년), 배출되는 탄소 120만 톤에 대해 OO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상쇄 * 제3자검증 완료 * 프로젝트 관련 자세한 정보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SG 주요 현안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과 활동

구분	준수사항	'좋은 예시' 주요 사례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에 대한 표시·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재생에너지 총사용량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조직의 총에너지 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에너지 사용량 내 신·재생에너지의 비율 (2020년) 5% → (2021년) 9% → (2022년) 20%
원·부자재 및 용수 사용 절감에 대한 표시·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수 사용량 절감을 통한 수자원 보호 활동, 재활용을 통한 원·부자재 절감 등 기업 활동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미한 성과와 함께 구체적 수치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정 공정용법을 이용하여 2020년 대비 2021년에 동일량의 제품 생산 시 사용되는 원·부자재 사용량 20% 절감
폐기를 발생 저감에 대한 표시·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교 대상이 되는 기준연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준연도와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동일한 기준에서 산출된 수치(생산량, 매출액 등 조직 특성이 고려된 원단위)로 표시·광고 * 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표시·광고할 경우, "폐기물 재활용 비율 = 재활용량(재사용량 포함) ÷ 폐기물 발생량" 등으로 산정하여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 재활용률 2022년 목표: 36.0 2022년 실적: 39.1 2023년 목표: 34.7 2023년 실적: 36.6 * 단위: % * 생산량 대비 폐기물 재활용 비율
협력업체 환경경영 지원에 대한 표시·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업체의 환경경영 지원을 위해 노력한 내용(교육지원, 기술지원, 금융지원, 설비지원 등 구분)을 명확하게 표시·광고 * "환경 분야의 상생 협력을 위한 00개 사에 대해 00억 원 금융 지원" 등 국민에게 알리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세부적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직원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탑승 캠페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 3회 대중교통 탑승을 인증하는 경우, 복지 포인트 지급 혜택을 제공

3. 환경부 가이드라인의 시사점

최근 그린워싱 규제 및 논란의 이슈는 제품의 표시·광고 영역에서 기업 공시자료, 기업의 탄소중립 선언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법적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된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이 친환경 경영활동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각 세부사항별 <잘못된 예시>, <좋은 예시> 및 <표시·광고 기본원칙 위반항목> 등과 <자가진단표>, <환경관련 국내외 주요 제3자 인증 안내>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관리체계 구축과 공급망 리스크의 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1.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2. 제17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발표자료 '그린워싱 리스크와 대응방안', '24. 2. 5
3.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법무법인 세종, 2023.11.08 뉴스레터

E

환경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손질 예고...예상배출량→절대량 변경 검토

전자신문 | 2024.01.16, <https://www.etnews.com/20240116000172>

'기후테크' 뜰까... 국내 첫 종합 포트폴리오 상품 등장

파이낸셜뉴스 | 2024.01.18, <https://www.fnnews.com/news/202401180842484029>

세달 뒤 총선, "유권자 '기후위기 공약' 원해"

ESG경제 | 2024.01.26,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703>

GRI 생물다양성 공시 새로운 기준안 공개

ESG경제 | 2024.01.26,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706>

그린워싱 규제 강화 분위기...ESG 경영 체계화 대응 필요

아시아경제 | 2024.02.05,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20422185128662>

EU, 2040년 기후목표서 농업만 '쏙'...살충제 규제법도 폐기

연합뉴스 | 2024.02.07, <https://www.yna.co.kr/view/AKR20240206170251098?section=search>

호주 정부, 기업의 기후공시 의무화하는 신규 법안 초안 발표

임팩트온 | 2024.01.17,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649>

UNDP, 인류는 다중위기에 직면...10년내 팬데믹 재발 확률 27%

ESG경제 | 2024.02.08,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798>

중국, ESG 의무공시 지침 발표...스코프3 배출량 보고도 포함

임팩트온 | 2024.02.13,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61>

구글, 개인정보 침해 50억달러 손해배상 소송에 합의

ESG경제 | 2024.01.03,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541>

美 소비자단체, 스타벅스 "가짜 윤리적 소싱" 고소

ESG경제 | 2024.01.11,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591>

"美 패스트푸드 기업, 인력 부족에 '아동노동법 위반' 온상지로"

연합뉴스 | 2024.01.15,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5114400009>

EU, 그린워싱·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韓 ESG 경쟁력 강화해야"

전자신문 | 2024.01.21, <https://www.etnews.com/20240121000021>

ERT 회원사 총출동... '기업의 사회적 역할' 길 찾는다

에너지경제 | 2024.01.25, https://m.ekn.kr/view.php?key=20240125010007305#_PA

EU 세계 첫 'AI법' 승인...이르면 내달 발효

세계일보 | 2024.02.04,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204508445>

인적자본 공시 의무화한 美 SEC...일본은 국가 개혁의 의제로

한국경제 | 2024.02.0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0539191>

유연근로자 1인 최대 480만원 지원... 저출산 '해결책' 될까

머니S | 2024.02.11, <https://www.moneys.co.kr/article/2024021017375878447>

중대재해처벌법, 무조건 '처벌'은 아니다... "위험성평가부터 반드시 실시"

중앙일보 | 2024.02.1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8116>

100대 기업 여성 사외이사 100명 넘었다...80년대생 6명

중앙일보 | 2024.02.0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7645>

인텔과 삼성전자가 'SBTi'에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

ESG경제 | 2024.01.09,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577>

中, 5년만에 회사법 개정...노동이사제 확대·차등의결권 도입이사회, ES

연합뉴스 | 2024.01.03,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3154100083>

셀 투자자 그룹, 셀에 기후 목표 설정 압박...주주제안 제출

ESG경제 | 2024.01.19,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650>

올해 주총 이슈는... "소유분산기업-경영권 분쟁-배당정책"

연합뉴스 | 2024.01.29,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6120300002?input=1195m>

한계 드러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 "개선 필요"

조세일보 | 2024.02.07,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4/02/20240207509419.html>

S

사회



G

지배구조



1. ESG 금융

(1) 국내 사회책임투자 채권 상장 종목 수

(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단위: 개)

구분	'23.6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4.1
녹색채권	249	247	249	257	268	276	278	279
사회적채권	1,246	1,281	1,314	1,371	1,394	1,440	1,463	1,474
지속가능채권	297	292	287	294	289	280	290	285

(단위: 천억 원)

(2) 국내 사회책임투자 채권 상장 잔액

(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구분	'23.6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4.1
녹색채권	243	241	241	249	251	254	256	255
사회적채권	1,768	1,803	1,849	1,898	1,928	1,971	1,994	1,999
지속가능채권	217	216	209	212	207	201	203	199

자료: KRX 사회책임투자채권-통계-상장현황

2. ESG 평가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

('24.1.31)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8	14	20	38	78	131	162

(2)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

('24.1.31)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지배구조보고서	76	101	213	224	231	355	380

자료: KRX ESG 포털

3. 기타 통계

RE100 참여 국내외 기업(기관) 수

* CF100 참여 기업 수: 145개 ('24.1)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내	-	-	-	6	14	27	36	36
글로벌	101	141	204	269	335	393	426	427

자료: <https://www.there100.org/re100-members>, <https://24-7cfe.com/>

2024년 ESG 뉴스레터 발간 주제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및 문의처

*지속가능경영원

1월	COP28 주요 결과와 시사점
2월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주요내용과 활용
3월	ESG Digitalization과 데이터 통합관리
4월	KSSB 국내 ESG 공시제도 최종안
5월	국내기업의 ESG위원회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6월	글로벌 인적 자본 공시 현황과 대응방안
7월	EU 공급망 실사 지침 (CSDDD) 최종안
8월	S분야 현안, 다양성.형평성.포용성 (DEI)
9월	미 SEC 기후 공시 규칙안과 영향 분석
10월	EU 순환경제 법안 동향과 대응전략
11월	해외탄소배출량 측정 현황과 과제
12월	글로벌 기업의 ESG 연결 공시 우수사례

권우혁 연구원 | E. whk@korcham.net

김예원 연구원 | E. kyw1208@korcham.net